

# 지난달 폐렴 입원... 사선 넘나들며 투병 37일

## ■ 입원에서 서거까지

의지로 버티며 한때 회복 기대

국내외 800여 유명인사 병문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폐렴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가 37일 만에 병원을 이기지 못하고 서거했다.

그동안 위험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폐유로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의 투철한 의지도 세월의 힘을 이기지는 못했다.

고인은 지난달 13일 가벼운 열과 함께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은 그동안에도 몇 차례 있어서 주변에서는 곧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은 기대와 달리 악화됐다. 김 전 대통령은 입원 사흘 만인 지난달 15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음날에는 산소포화도가 처음으로 정상치를 밟는 86%까지 떨어져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다. 다행히 멀지 않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됐고, 7월 22일 인공호흡기를 끄고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서 회복의 기대를 부풀리게 했다.

이런 기대는 일반병실로 옮긴 바로 다음날 폐동맥이 막히는 폐색증증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서 허물어졌다.

김 전 대통령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이때부터 심각한 고비가 잇따라 찾아왔다.

건강상태는 날로 악화해 김 전 대통령은 7월 29일 기관절개 수술을 했고 갑자기 혈압이 떨어질 때마다 의료진은 강심제 같은 약물을 투여해야만 했다. 이때부터 주변에서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 곳곳에서 800여명의 유명인이 문병을 하며 폐유를 빌었으나 이런 바람은 멀리하고 18일 오전부터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는 크게 떨어졌고 오후 1시 43분 고인은 끝내 운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서거했지만 평소 건강도 수차례 겪은 죽음의 고비만큼 편치 않았다.

그는 1971년 5월 24일 벌어진 의문의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고관절 장애를 입고 여성을 불편한 다리로 지내야 했다. 또 유신 아래 5년 반의 투옥, 3년여의 망명, 6년 반의 가택 연금과 고문 등으로 건강을 돌보기 가 힘든 세월을 보냈다.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2년 4월 과로와 위장장애 등으로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입원해 국민을 놀라게 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2003년엔 관상동맥 확장시술을 받고 이후 매주 세 차례씩 신장 혈액 투석을 받아 왔다.

그러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영결식장에는 훨씬 더 탄채 등장했으며 지난 6월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서 참석,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으나 동자 하나하나를 살펴본 주변에서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결국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결국 반생 생을 괴롭혀 온 유키의 고통을 조용히 내려놓고 영면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입원 이후 의료진으로 참석한 전문의 A씨에 따르면,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전날 밤부터 나빠지다 이날 오전 9~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심장 멎어”

### 병원측 사인 발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폐렴으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서거 후 병원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통령

이 오늘 오후 1시 43분 서거하셨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7월 13일 폐렴으로 입원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서 심장이 멎으셨고 급성호흡곤란 증후군과 폐색증증 등을 이겨내지 못하셨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 여사가 준 병어리 장갑 낀채 영면

### ■ 임종 순간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 당시 가족과 측근 인사 등 20여 명이 지켜본 가운데 이희호 여사가 손수 만들어준 병어리장갑을 끼고 평온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의 입원 이후 의료진으로 참석한 전문의 A씨에 따르면,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전날 밤부터 나빠지다 이날 오전 9~

10시께 급격히 악화하자 중환자실로 들어가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운명을 당시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했다. A씨는 “이 여사는 누워계신 김 전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아 병어리장갑을 끼고 오른손을 부여잡은 채 흐느끼셨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측근들은 “여사님을 잘 지켜 드리겠다”, “저희가 잘 알아서 (정치)하겠다”는 등 돌아가면서 한 명씩 김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 /연합뉴스

## 국장... 국민장' 장례 형식 오늘 결정

- 김종우

총리 주재 회의... 행안부 장관 유가족 측과 협의 장의 준비

### 업적 고려 國葬 주장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이 이르면 19일 오전 중 결정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장례 절차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역대 대통령의 관례를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 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족 측과의 장례 형식 협의 상황과 장

의(葬) 준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유가족 측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형식을 확정키로 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다.

한승수 총리는 “정부는 고인에 대한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고 퇴임 이후 서거한 죄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업적과 노력, 정치적 위상, 호남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국민장보다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승수 총리는 “정부는 고인에 대한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빈소로 향하는 이희호 여사

18일 이희호 여사가 주위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디 영면하소서



정미공고 제2009-01호

###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월장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기요

1) 사업 명: 주월장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86번지 일원

3) 발 주 자: 주월장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4) 대지면적: 29,983.78㎡

5) 사업방식: 지면제

#### 2. 입찰방식 및 입찰참여자격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 경매방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광주광역시에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분양 공동주택 설계공모 실적이 단일단지의 규모가 1,000세대 이상 건축설계 실력을 보유한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5) 협정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공동집여(전수사업) 불가

7) 입찰제작수수료: 0.5%

8) 입찰제작수수료: 0.5%

9) 입찰제작수수료: 0.5%

10) 입찰제작수수료: 0.5%

11) 입찰제작수수료: 0.5%

12) 입찰제작수수료: 0.5%

13) 입찰제작수수료: 0.5%

14) 입찰제작수수료: 0.5%

15) 입찰제작수수료: 0.5%

16) 입찰제작수수료: 0.5%

17) 입찰제작수수료: 0.5%

18) 입찰제작수수료: 0.5%

19) 입찰제작수수료: 0.5%

20) 입찰제작수수료: 0.5%

21) 입찰제작수수료: 0.5%

22) 입찰제작수수료: 0.5%

23) 입찰제작수수료: 0.5%

24) 입찰제작수수료: 0.5%

25) 입찰제작수수료: 0.5%

26) 입찰제작수수료: 0.5%

27) 입찰제작수수료: 0.5%

28) 입찰제작수수료: 0.5%

29) 입찰제작수수료: 0.5%

30) 입찰제작수수료: 0.5%

31) 입찰제작수수료: 0.5%

32) 입찰제작수수료: 0.5%

33) 입찰제작수수료: 0.5%

34) 입찰제작수수료: 0.5%

35) 입찰제작수수료: 0.5%

36) 입찰제작수수료: 0.5%

37) 입찰제작수수료: 0.5%

38) 입찰제작수수료: 0.5%

39) 입찰제작수수료: 0.5%

40) 입찰제작수수료: 0.5%

41) 입찰제작수수료: 0.5%

42) 입찰제작수수료: 0.5%

43) 입찰제작수수료: 0.5%

44) 입찰제작수수료: 0.5%

45) 입찰제작수수료: 0.5%

46) 입찰제작수수료: 0.5%

47) 입찰제작수수료: 0.5%

48) 입찰제작수수료: 0.5%

49) 입찰제작수수료: 0.5%

50) 입찰제작수수료: 0.5%

51) 입찰제작수수료: 0.5%

52) 입찰제작수수료: 0.5%

53) 입찰제작수수료: 0.5%

54) 입찰제작수수료: 0.5%

55) 입찰제작수수료: 0.5%

56) 입찰제작수수료: 0.5%

57) 입찰제작수수료: 0.5%

58) 입찰제작수수료: 0.5%